

10년새 승강기 2.4배 급증... 노후화도 심화

2015년 6665대 → 지난해 1만6232대로 크게 늘어 15년 이상 정밀안전점검 대상 17.8% 사고 우려도

2015년을 기점으로 제주 '이주열풍'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건축경기 활성화로 승강기 수가 크게 늘었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15년 이상의 노후 승강기가 5대 중 1대꼴로 안전사고(고장)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승강기 수는 1만6232대로 전년보다 600대(제주시 401, 서귀포시 199) 늘었다. 10년 전인 2015년 6665대에 비해서는 2.4배가량 불어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도내에 설치된 연도별 승강기 수와 증감률은 ▷2015년 6665대, 20.6% ▷2016년 8300대, 24.5% ▷2017년 1만142대, 22.2% ▷2018년 1만1455대, 13.0% ▷2019년 1만2587대, 9.9% ▷2020년 1만3419대, 6.1% ▷2021년 1만4153대, 5.5% ▷2022년 1만4838대, 4.8% ▷2023년 1만5632대, 5.4% ▷2024년 1만6232대, 3.8% 등이다.

특히 2015년부터 제주에 이주열풍이 본격화 되면서 이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들어서며 승강기 수도 비례적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 도내 주택은 2015년 19만5224호에서 2019년 24만1788호로 4년 동안 4만6564호(23.9%)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종류별 승강기 현황은 엘리베이터 1만5737대(96.8%),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322대(2.1%), 휠체어리프트 172대(1.1%) 등이다. 연수로는 15년 미만인 1만3347대(82.2%)이며 나머지 15~25년 2256대(13.9%), 25년 이상은 629대(3.9%)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비율이 17.8%로 적지 않다.

설치 장소는 공동주택 7587대(48.5%), 숙박시설 1720대(11.0%), 단독주택 1321대(8.5%), 교육·연구

시설 804대(5.1%), 문화·집회시설 258대(1.7%) 등이다.

최근 5개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고장) 건수는 1253건이며 중대 사고는 나지 않았다. 사고에 따른 인원은 2168명이며 이중 2031명(93.7%)이 간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35건이 발생했으며 용도별로 공동주택이 563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시설 259건(20.7%), 업무시설 65건(5.2%) 등의 순이었다.

도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와 함께 하반기에 민간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안전한 먹거리 환경도 관광 경쟁력”

제주시, 식품안전구역 추진 우수 음식점 730개소로 확대

제주시는 지난해 비계삼겹살, 바가지요즘 이슈 등으로 실추된 제주 관광 이미지 회복을 위해 올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6일 제주시에서 따르면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우수 음식점을 종전 712개소에서 730개소로 확대한다. 일정한 지역이나 거리에 있는 음식점이 20개 이상이고 위생등급 지정 업소가 60%가 넘는 식품안전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수도요금 감

면, 조리장 청소 대행비 지원 등 인센티브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2% 증가한 4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제주시는 또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노후 시설 개선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용자 사업에 식품진흥기금 예산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음식점 외가게 표시판 제작 지원,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개식용 음식점 전·폐업 비용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횡집, 김밥 판매업소 등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사전 컨설팅을 벌인다. 전선희기자

“난민·이주·이동 등 실천적 해결 방안 모색”

탐라문화연구원,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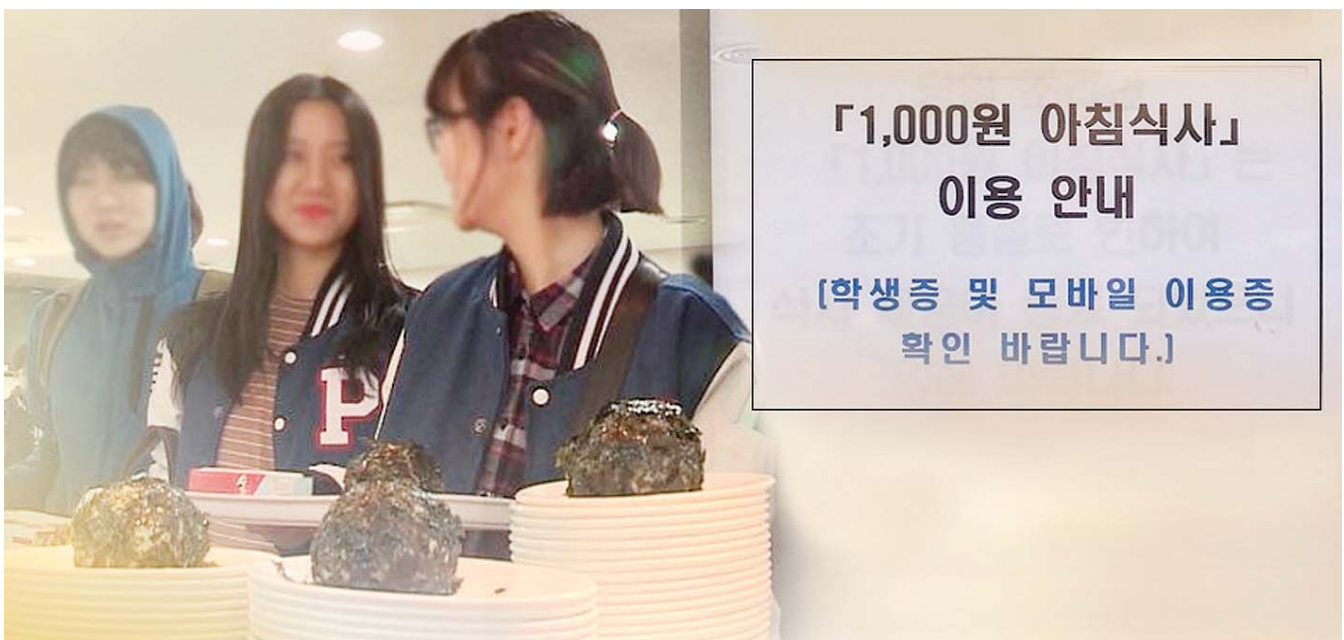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은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에 참여해 '2024~202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와 '한국사회 이해'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김치완 원장은 "탐라문화연구원은 정책인문학을 표방하는 '쿠퍼인문학'을 중심으로 지난 6년 동안 제주와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난민, 이주, 이동 등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해결 방안을 찾아왔다"라며 "향후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가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에 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부터 도내 제주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천원의 아침밥’ 방학에도 먹을 수 있다

제주대 조기 시행... 관광대·한라대는 3월부터 운영 도, 올해 예산 1억8000만원 확보 한끼당 2000원 지원

도내 대학에 대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겨울방학 기간(1~2월)을 포함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내 3개 대학(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의 참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제주대학교는 올해 변경된 사업 일정에 맞춰 1차 지원학교로 선정돼 겨울방학 중인 이달 6일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다. 제주관광대와 제주한라대는 2차 지원학교로 신청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같이 1학기 개강(3월)과 함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에 전년 대비 2000

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학생 1인당 6000원인 아침식사 비용 가운데 도비 2000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정부(2000원), 대학(1000원), 학생(1000원)이 부담한다.

대학별로 운영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사업성과는 뚜렷하다. 도내 대학의 이용 학생 수는 2023년 3만5120명에서 지난해 9만4102명으로 5만8982명(약 2.7배)이 증가했다. 일평균 이용 인원도 2023년 350명에서 지난해 471명으로 121명(약 1.3배)이 늘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새학기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준비 속도

도교육청 “지위 변화 관계없이 시범 운영 시작”

6일 조천초서 AI 교과서 정상 작동 등 테스트

새학기 제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갖든 참고자료의 지위를 갖든 관계없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라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6일 밝혔다.

새 학기 당장 학교 현장에 보급을 앞둔 만큼,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6일 조천초등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2차 현장 관통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작업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확인한 뒤 미작동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별로 도입할 AI 디지털교과서의 출판사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후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신청을 접수해 출판사와 계약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AIDT 도입 이행안(로드맵) 조정안'과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검정심사 결과, 12개 출판사에서 제작한 총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했다. 향후 일선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2025년 1학기부터 교실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신학기부터 당장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실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목은 영어·수학·정보 교과다. 2026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국어, 실과와 중학교 국어, 기술·가정은 '적용 제외' 과목에 포함됐다. 사회, 과학 교과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초록우산

2024년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지난 1년간 초록우산이 펼치는 나눔활동에 함께 동참해주신
제주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연계

일시후원금 **324,130,190원**

정기후원자 **796건**

후원 물품 **25,980,556원**

모여진 후원금들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생활비, 학습비, 주거비, 의료비 등 다양한 분야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초록우산 제주후원회는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제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회장 황금신 외 회원일동

후원문의 (064)753-3703

2024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송년의 밤'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대상 축하합니다